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희망과 행함으로의 부르심

연합감리교 총감독회

기초문서

1. 지난 수백년 동안, 유대인, 기독교인, 회교도인 등 소위 “성서의 사람들(The People of the Book)”은 가뭄, 화재, 홍수, 사나운 파도와 폭풍우를 겪었다. 이들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거듭 노래한 시편 기자의 오랜 지혜에 의지하여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

2. 오늘날 인류는 긴박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수천년간 안정적인 기후 덕에 인류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 지구의 온도는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기후 변화는 특히 전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빠르게 퍼지고, 줄어드는 천연 자원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손쉽게 무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며, 핵전쟁의 공포는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3. 분명 우리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변혁이 필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있다. 지금은 고대인들의 지혜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이사야 43:19). 이런 위기의 시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표징들을 주목하자.

4. *지구의 환경이 변해 감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시대의 징후들을 읽어내고 지성과 신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5. *숙련된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인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모니터하고 있다. 이들은 삼림과 대양, 대기, 인류 및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즉각 취해야 할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6.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그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편들을 창안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를 풍력에너지와 태양에너지로 대체하는 기술, 새로운 방식의 운송수단, “녹색 일자리(green jobs)”, “탄소 배출량(carbon footprints)”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다. 이미 종교 단체, 지역사회단체, 교회, 사업체, 농장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이고 근원적인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7. 더우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을 맞아 함께 모여 대책을 강구하고 행동하도록 하신다. 동네, 마을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권고한다. 도시, 주, 그리고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유엔(United Nations)과 여러 국제기구들은 현재 지구 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조직들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 지도자들은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데 열의를 쏟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금융, 산업,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놀랍도록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전세계적인 네트워크화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8.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초종교 공동체들은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세계교회협의회가 작성한 “정당한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은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질서 보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

9.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시대의 징후들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분명 새롭게 역사하시며 새로운 창조적 변화에로 인류를 초대하고 계신다.*

희망과 행함으로의 부르심

10. 2004 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총감독회에 평화, 인간, 그리고 지구에 미친 삼중위협에 대응하여 실천 방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기초문서는 목회 서신, 연구지침서, 인터넷 웹 자료에 더하여, 우리 감독들이 그에 대한 응답의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다.

11. 기초 문서는:

- 빈곤과 질병, 환경의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밝힌다.
- 우리의 대응책에 기초가 되는 기독교 신앙과 성서, 웨슬리 전통에 대해 소개한다.
-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용기와 희망의 근원이 되심을 일깨워 준다.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듣기

12. 지난 2년간 우리 감독들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필리핀,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타 교단, 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현 위기에 대한 그들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또한 목회서신과 이 기초문서를 통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바라는지도 물어보았다. 그 중 꾸준히 요구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 공포, 불안, 좌절감과 차세대에 대한 염려를 표할 것
-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고백하도록 이끌어 줄 것
- 성서 및 신학적 근거와 웨슬리 전통의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을 환기시킬 것
- 생활 양식의 변화와 사회 체제 및 구조의 개선을 요청할 것
-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감, 초조함과 냉소주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감독으로서 삶과 행동의 솔선수범을 보일 것
- 기도하고, 연구하고, 행동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지 지침을 줄 것
- 두려움과 염려가 희망과 행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

13. 이 기초 문서는 목회서신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묵상과 연구 및 실천을 위한 참고자료이다. 이 문서는 불공평한 사회 구조와 체제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소개하며, 우리들이 기획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연계하여 사역하고 있는 상황을 전해준다. 이 문서는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로 하여금 고립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과 약속을 품고 이 사회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현실 직시

14.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든 불안과 상실과 고뇌를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피조물에서 시작하였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이야기다. 이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이며, 폭력, 탐욕, 그리고 억압을 비판하신 이야기다. 이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며,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이야기다. 또한 그리스도안에서 약속하신 새생명의 이야기다. 이는 옛것에서 새로움으로, 상처에서 치유로, 그리고 폭력과 불의에서 정의와 평화로 바뀌는 변화의 이야기다.

15.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있지만, 신실하게 실천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조물을 맡기셨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로운 세상과 사람들을 신실하게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치하고, 우리의 공기와 물을 오염시켰으며, 세상을 전쟁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외면하여 왔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우리는 빈곤과 질병을 확산시키고, 환경을 악화시켰으며, 온갖 무기와 폭력이 양산되도록 만들었다.¹ 전세계적으로 이 세가지가 서로 결부되어 그 방식이나 정도에서는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6. 현재의 이 위기상황에는 다음 세가지가 결부되어 있다.

빈곤: 사리사욕과 속임수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세계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세계적 경제 위기**; 식량, 물, 그리고 에너지의 부족으로 인한 **자원 부족의 위기**;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정의/빈곤 위기**;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HIV/AIDS), 결핵 등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만 가난해서 예방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는 **세계적 건강 위기**; 폭력과 자연재해, 그리고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백만명의 **난민 위기**가 있다.

17. 환경: 20-30년 안에 석유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에너지 위기**; 증가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황폐화되어 비옥한 땅이 사막화되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며, 화재가 일어나는 시기가 장기화되고, 연안지역 해수의 범람이 잦아지고, 심각한 태풍이 증가하는 **기후 위기**; 2050년 즈음에는 적어도 지구의 1/5의 동물종과 식물종이 멸종할 것이라는 **생태 위기**가 있다.

18. 무기와 폭력: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의 위협이 증가하고, 귀중한 자원들이 쓸데 없는 무기경쟁으로² 막대하게 소모되는 **무기 위기**; 전세계에 걸쳐 대략 6억 3천 9백만개의 소형무기가 유통되고, 불법으로 거래되는 소형무기 시장이 근 10억 달러에³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소규모 무기거래의 위기**; 2007년 미국달러 기준 1.2조를 넘는 전세계적 군비로 인한 **“안보” 위기**(미국은 전체액의 45%를 차지함)가 있다.

19.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얽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구와 인류는 이러한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의 한 문제만을 별도로 다룬다고 해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전쟁으로 인한 자원의 고갈, 에너지 위기, 환경인종차별주의(environmental racism), 경제적 세계화, 여성과 소녀 같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 등, 너무나도 복잡한 그 **파멸의 연결망**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격동적 위기 속의 삶

20. 이러한 세 가지 문제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 나름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 다음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 중 몇 가지이다.

21. 2007년 11월 21일 7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한 필리핀의 로젤리(Rosalie)의 이야기다. “로젤리는 라푸-라푸(Rapu-Rapu)라는 한 어촌에서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던 아이였다. 라푸-라푸가 속한 비콜의 알베이(Albay, Bicol) 지역은 채광산업이 시작된 이래 생계를 위한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철저히 파괴된 곳이다.”⁴ 로젤리는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굶주림으로 사망하였다.

22. 앙골라의 감독들이 들려준, 농지를 쓸모없게 만든 지뢰밭에 대한 이야기다.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지뢰를 제거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위험하여 그런 땅은 경작하지 않고 그냥 놀리고 있다. 앙골라는 15 개국에서 제조된 지뢰의 영향을 받는 82 개국 중 하나다. 최소한으로 잡더라도, 지뢰제거 비용은 그 생산비용보다 100 배 정도 더 든다. 매년 약 15,000-20,000 명이 지뢰 때문에 다치거나 사망한다.⁵

23. 미국 동부의 애팔래치아 산맥에서는 산봉우리와 산등성이를 폭파하여 지하 탄층을 뚫기 위해 매일 1,000 미터톤(metric ton) 가량의 폭발물이 사용되고 있다. 산봉우리 제거작업(MTR)은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하며, 산사태와 홍수,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된다. 또한 건강과 안전에 장기적인 위협이 된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산봉우리 제거작업(MTR)은 2010 년까지 미국에서 1.4 백만 에이커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델라웨어주보다 넓은 면적이다.⁶

24.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목적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29:11)

25. 파괴되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며 절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파괴와 고통이 이런 이야기의 결말은 아니다. 파괴와 고통은 일부분일 뿐이지, 우리 경험의 전체가 될 수 없다. 부정부패의 한가운데에도 정직은 있고, 탐욕의 한가운데에도 관대함이 있으며, 살인의 한가운데에도 연민이 있다. 파괴의 한가운데에도 창조가 있고, 황폐의 한가운데에도 보존이 있으며, 무관심의 한가운데에도 의로운 분노와 거룩한 불만족과 가능성에 대한 열정이 있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라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을 볼 수 있다.

26. 동아프리카의 연안 부두 인부들은 밀반입하는 소형무기들이 실려 있는 외국 선박의 하역을 거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살상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저 멀리 남쪽의 부두 인부들에게 선적 거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7. 독일 라게(Lage) 지역의 연합감리교인들에 의하면, 독일은 모잠비크 캄바인(Cambine)과 꾸준히 협력하여 태양에너지 사용을 널리 알리고 있다. 그들은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과 신학교에 태양열 충전패널을 설치하였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새 삶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에너지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태양열 충전패널을 설치한 산부인과 병동에서 첫번째로 태어난 남자 아이의 이름을 “솔라리노(Solarino)”라고 지었다.

28.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신앙인들을 중심으로 총기 “대리구입 (straw purchase)” 종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총기 대리구입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양도하는 구매방식을 말한다. 비폭력 자원봉사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념하라(Heeding God’s Call)”는 각성운동을 벌이면서, 총기소매상들과 직접 접촉하여 그들이 이런 폭력의 고리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질 것과 대리구입과 같은 총기판매를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을 권하고 있다.

29. 2004년 필리핀 노동자 파업때 14명이 피살된 이후, 연합감리교회와 초교파적인 청년들과 성인들이 조직을 만들어, 매주 노동자를 방문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충에 증인이 되어 주며, 노동자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의회에 청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뿐 아니라 강인함과 두려움과 약한 모습을 나누는 경험은 삶을 변화시키며, 젊은 세대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본뜬다 준다.

30. 서로에 대한, 그리고 지구에 대한 무관심과 파괴의 이야기는 자주 세상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러나 보존, 연민, 돌봄, 그리고 긍정적 변화 역시 매일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어느 누군가는 차별을 반대하는 편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를 옹호하는 편지, 무기소유 금지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한 편지를 쓰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The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는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나쁜 상황이 더 악화 되지 않도록” 재난 대처 훈련을 하고 있다.⁷ 지금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고, 어느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비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31.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새로운 학교가 설립되고, 새로운 우물이 샘솟고 있다. 의료품 상자와 모기장 박스를 개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해 가르쳐 주고, 여러 단체들은 탄소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동네에서 운전을 하고 다녀도 어린이들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 수소 자동차, 클리너 버닝 디젤차 등의 새로운 운송수단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단체들은 에너지 검사를 하고, 재활용을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제품들을 교환하고, 태양열 충전 패널과 풍력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32. 비록 현실이 비관적이고,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힘겹게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냉소적이고 냉담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역사하신다.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들이며, 손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33. 우리는 눈을 떠,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우리의 역할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인간과 자연의 문제가 별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탄식하는” 상호연관된 조직체임을 보게 된다(로마서 8 장 22 절). 평화와 인간과 지구에 미친 위협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비전은 완전한 전세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눈을 뜨면,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된다. 우리가 눈을 떠,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는 것과 같은 자비로운 행위, 정의로운 실천, 평화를 위한 용기, 화해의 순간, 폭력의 중단, 회복된 환경, 이 모든 것을 찬양하게 된다. 이는 마치 폴 탈리히의 말처럼 “우리가 바라는 바들이 이 땅에 씨앗처럼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⁸

34. 눈을 뜨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으로서 존 웨슬리의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natural image of God)”에 대한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Works* 2:188).⁹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조주에 의해,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및 우리 이웃과 연결되게 창조된 영적 존재임을 뜻한다. 우리가 받은 첫번째 선물은 이성으로서, 질서와 관계를 식별하고, 만사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며, 판단을 하는 우리의 능력을 뜻한다. 그 두번째 선물은 의지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어떤 목표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는 일에 전념하고 매진하게 하는 능력이다. 세번째 선물은 자유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계와 같이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웨슬리는 “단순한 기계”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인간의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Works* [Jackson] 10:234).

35.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정확한 이해와 바른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하고 악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우리 모습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세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36. 우리는 마음을 열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초대에 응답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마음을 열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 마음을 열면, 우리가 애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 마음을 열면, “의로우시며, 이루실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된다”.¹⁰

37. 웨슬리의 말을 따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연다(*Works* 2:188).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받을 때에만 우리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다시 반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반영하는 과정을 호흡에 비유하여 “영적 호흡” 이라고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호흡을 다시 되쉬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계속 응답하는 것이다.”(*Works* 1:442)

38. 우리는 손을 펴서 성령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피조물을 돌보아야 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 받았다. 웨슬리는 이를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 이라고 불렀다.(*Works* 2:188)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마치 어떤 특권처럼 여기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이라는 우리의 지위는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지 특권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돌볼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지, 피조물을 마음대로 남용하라는 것이 아니다.¹¹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이루며, 지구를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자리에 없는 주인 대신 땅을 돌보는 관리인이 아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불어 넣으신다.

39. 웨슬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부터 받았다... 청지기는 맡겨진 것들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할 자유가 없다. 다만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청지기는 어떠한 소유권도 없다. 오직 맡겨진 사명이 있을 뿐이다”(Works, 2:283). 우리에게는 지구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다.(Works, 2:440).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

40.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한다.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히브리 예언자 전통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다. 예수님의 사상을 형성한 것도 이 히브리 예언자 전통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예루살렘]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이사야 65:19b, 20, 21, 23)

이 말씀은 모든 형태의 행복을 내포하고 있다. 사람들과 땅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비전이며, “모든 피조물이 조화와 안정을 이루며, 기쁨과 서로의 행복을 나눈다.”¹² 이는 온전함을 꿈꾸는 비전이다.

41.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을 향한 영광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 한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바울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로마서 8:21, 22) 하나님은 피조물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도 하신다.

42. 웨슬리는 이 로마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피조물”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통 속에서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더 나아가서 웨슬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이다.(Works 2:445)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주적이다.

43. 골로새서 역시 화평케 하시고 통합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든 피조물에 까지 확대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골로새서 1:15-20)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구속에 대한 약속”¹³이다. 즉, 피조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44. 복음서 저자는 종종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쳐 주셨다”고 묘사한다.(마태복음 4:23)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셨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일은 모두 치유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를 치유하고 계신다.

45. 존 웨슬리는 이러한 치유의 언어를 자신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분명히 사용하였다. 실제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즐겨 사용하였던 은유(metaphor)적 표현은 “위대한 치유자”라는 비유였다.(Works 2:184)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행복과 복지에 관심이 있다고 웨슬리는 믿었다. 구원은 포괄적인 것으로서 곧 온전한 거룩함과 행복으로 이해되었다. 구원의 개념을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면, 우리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포괄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위대한 치유자의 손에서 모든 세계는 완전하고 건강하게 된다. 빈곤과 질병, 환경의 악화, 그리고 폭력은 우리가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만일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눈을 뜨고 관계를 본다

46. 우리는 눈을 뜨고, 빈곤과 질병, 환경의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의 확산 간에 얽힌 관계를 보아야 한다. 비록 이렇게 얽힌 관계를 극복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이런 문제들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려면, 특정한 문제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고 그에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부족해져 가는 식수문제를 언급하지 않고는 전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 점차 감소하는 자연 자원과 광물이 폭력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는 무기의 확산을 방지할 수 없다. 무기에 쏟아 붓는 돈의 액수를 말하지 않고는 건강관리, 학교, 도로, 우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할 수 없다.

47. 빈곤과 질병, 환경의 악화, 그리고 무기 문제를 놓고 우리 각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겠지만, 이 모든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 문제의 피해자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정책이나 실행방안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깊숙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세계의 고리와 같아서,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48. 세계교회협의회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 보고서”에서 환경의 악화와 빈곤과 질병의 상호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은 주로 지구 남반구에 사는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자연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사람들이다. 다음은 가난하고 취약한 지역이 지속적으로 더 심각하게 겪게 될 문제들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삼림벌채, 기온상승으로 인해 말라리아나 뎅기열(dengue, 출열혈의 일종) 같이 모기 등 곤충이 옮기는 질병이 아프리카 고산지역에 증가하는 추세, 강제 이민, 특히 태평양 연안 지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강제 이주 등.¹⁴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2007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복음주의 환경연맹(Evangelical Environmental Network)은 농산물 생산 감축으로 인해 “금세기에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4천만명-1억 7천만명 정도 더 늘어날 것” 이라고 쓰고 있다. “10억에서 20억의 사람들이 이미 식수난을 겪고 있지만, 이들은 앞으로 더욱 감소될 식수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¹⁵

49. 세계의 많은 연합체들은 유엔 밀레니엄 개발 계획 (United Nation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 이 계획은 절대 빈곤, 질병, 친환경적 개발, 세계화, 교육 및 인권 문제 등 서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전세계의 절대 빈곤자를 없애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일이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의 눈을 통해 보면... 식량, 연료, 그리고 재정적 위기 등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이 밀레니엄 개발 계획의 수혜자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불리한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무수한 위기들-식량 위기, 재정 위기,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이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바로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이야말로 오늘날의 이런 위기 상황을 가져온 사람들이다.”¹⁶

50. 무기를 생산하고 사들이는 일에 우리 자원을 쏟아 붓는 것 역시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오래동안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총을 생산할 때마다, 전함을 띄울 때마다,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험벗고 굶주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¹⁷ 엄밀히 말해 자원고갈의 가장 큰 피해자는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 소수인종과

소수민족이다. 이들은 쓰레기를 배출해 내는 사람들이 내다버린 오물을 말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더욱 푸른 초장”으로 이동해 가는 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오염된 땅과 물에서 살아야 한다. 많은 경우에, “친환경적이 된다(going green)”는 것은 단기간에 경비를 들여 가난한 사람들이 장기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곤경을 이 지구가 처한 곤경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이런 문제의 원인제공에 가장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¹⁸

51. 세계 곳곳에서 고갈되고 있거나 귀한 자연 자원들은 폭력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콩고공화국에서는 민병대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군인으로 삼거나 성적 노예로 만들고 있으며, 광물이 풍부한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중에 마을을 불태우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땅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갈등의 결과물이 되기도 한다. 지뢰로 뒤덮인 농토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이다. 일부러 땅을 초토화시켜 결국 마을 주민이 영구히 그 땅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오래된 전쟁 관습이다.

52. 재래식 무기는 이미 피조물을 조금씩 파괴해 가고 있는 반면, 핵 무기는 “지구와 인류를 황량한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¹⁹ 더우기, 지구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핵 폐기물의 안전처리라고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은 냉전 이래 극적으로 변해왔지만, 최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말했듯이 “전세계적인 핵 전쟁의 공포는 줄어들었지만, 핵 무기의 위협은 더욱 증가했다.”²⁰ “냉전시대의 4대 강대국들”이 긴급히 모여 핵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한지 2년이 지났다. 이들은 모든 핵무기를 없애는 핵무기 확산방지조약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핵폭발을 금하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비준하며,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례차례 모든 핵 무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적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었다.²¹

53. 모든 피조물이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이든 인간이든 고통받는 자가 있는 한 모든 피조물의 전체적 안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40년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버밍햄 감옥에서 그 유명한 글을 썼다: “어디에 있는 것이든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 2009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우리 중 가장 약한 사람보다 더 안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부유하지도 않으며, 정당함과 공평함 없이 권력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거나 존엄하지도 않다.”²²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환경의 악화와 폭력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54. 빈곤, 환경의 악화, 그리고 폭력의 치명적인 결합은 모든 피조물을 위협하지만, 특히 유색인종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유럽과 미국 전반에 걸쳐, 인종적/민족적 소수 공동체는 공장, 실험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독극물 쓰레기의 폐기와 화석연료 채굴로 인한 오염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상업용 건물에 주거지역을 내어주고 있다.

55. 예를 들면, 수십년 동안 미서부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과 보호구역은 우라늄 광산 및 운송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인해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 땅에는 핵 폐기물과 방사능 물질이 묻혔다. 전쟁 무기 생산으로부터 나온 유해 폐기물들이 이곳에 버려지고 있다. 서부 쇼쇼니(Western Shoshone) 부족과 그 동맹 부족들은 아직도 네바다주 유카산(Yucca)에 원자력 폐기물을 묻으려고 하는 미국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 산은 쇼쇼니 부족에게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부족장인 이안 자발트(Ian Zabarte)는 2007년 어느 공청회에서 미 정부를 “환경인종차별주의(environmental racism)”라고 비판하였다.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터졌다.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땅과 물이 치명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느끼는 고통과 분노의 박수였다. 토착민들의 땅에 대한 지혜와, 그 땅을 더럽히는 결과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²³

56. 빈곤과 질병, 환경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여성이다. 세계 빈민의 70%가 여성과 어린이들이며, 이들 다수는 주거지도 부족한 지역에서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다.²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먹을 양식을 책임지는 반면, 남자는 돈이 되는 농작물을 기르거나 도시로 가서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나 여성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율은 아주 적어서, 전세계 농지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²⁵

57. 내란과 환경의 악화는 여성과 그 가족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하고 있다. 여성들은 매일 불을 피울 장작과 마실 물을 구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강간이나 그밖의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강간과 성노예는 전쟁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전쟁과 더불어 여러 형태로 당하는 폭력이다.²⁶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3 명중 1 명 꼴로 다양한 수준의 학대를 경험하며 살고 있다.²⁷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지역에서, 여성은 자신들의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여성과 어린이는 실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자연파괴의 공범임을 인식한다.

58.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에서 “세계공동체”에 대해 논의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165.B) 이처럼 어떤 국가는 더 많은 양의 자원을 소비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며,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한다. 예를 들면,

세계 인구의 20%가 전기, 종이, 고기와 생선, 자동차 사용 등과 같은 개인 소비의 76%를 차지한다.²⁸

“세계인구의 12%가 전세계 물의 85%을 소비하고 있다. 이들 12%는 제3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²⁹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무기 공급국이다. 지난 2000년 부터 2007년 까지 거래된 모든 무기의 38%가 미국이 판매한 것이다.-이는 개발도상국으로 팔려가거나 이양된 무기의 약 1/2을 차지하는 숫자다 .³⁰

59. 세계 여러 나라들을 구분하는 다양한 명칭들이 있다: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 제1세계와 제3세계; 제1세계와 2/3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는 소위 “제1세계”에도 심각한 빈곤과 저개발이 존재하며, 소위 “제3세계”에도 풍족한 자금과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

60.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어떤 단순한 분류나 통계로만 분석하기에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일반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 맞는 일이기도 하다. 지구 북반구에 사는 우리들은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소비도 많이 하고, 쓰레기도 많이 배출하며, 무장(군사화)도 많이 되어 있다. 북반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야기해 온 환경 파괴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 소위 “환경적 혹은 생태학적 부채”라 불리운다.³¹ 우리는 무기와 폭력으로 안전을 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³² 우리는 또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우리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외면해 왔음도 고백해야 한다.

61. 우리는 또한 “어떤 나라나 문화도 자국민의 대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당하고 옳은 나라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³³ 지구의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인정해야 한다. 북반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처럼, 남반구에 사는 우리들은 무기로 안전을 추구하려는 정책에 도전해야 한다. 소중한 값진 자원을 무기에 소비한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들이 가진 것을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부족한 자원을 더욱 부족하게 만들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62.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원과 능력을 뒷박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지구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자비와 정의를 실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이 그 재능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돕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막는 일에 열심이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의 늪에 빠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해로운 행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

마음을 열고 기도한다.

63. 부서지기 쉽고 의존적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제멋대로여서 다른 사람을 과멸시키고,
우리 자신 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기꺼이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일할 때에
기쁘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리심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교회 자체를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관대하며, 좀 더 안전한 곳이 되기를,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기를 바라나이다.³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한다.

64.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우리 자신의 목적과 힘에 의지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며, 영감을 주시는 “초월적 근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거룩한 성령과 협력하여 그분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인간이 이 관계를 먼저 시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창조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³⁵

65. 존 웨슬리는 은혜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용서와 회복은 가능하다.³⁶ 하지만, 한 개인이 새롭게 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처럼) 들이마시는 것이 우선이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처럼) 세상으로 내쉬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이 응답하여 일구어 내는 아름다운 공동협력(synergy)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류 안에 복원하고, 피조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성령의 임재를 기뻐한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신 까닭은 우리 삶을 성화시키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이다.”³⁷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한다.

66.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피조물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리고 회복하시는 새창조의 역사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응답으로 우리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영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는 전혀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여러번 받으셨던 질문과 유사하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누가복음 10:25) 예수님은 두가지 사랑의 계명으로 대답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마태복음 22:37-39)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67.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빈곤, 환경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이런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한다.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영적 의식을 심화시키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돌림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도구로 만들수 있을 것이다.³⁸

68.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³⁹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관심을 갖고 돌보며, 도움과 위로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이 각기 자신만의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 또한 존중한다. 우리는 지구가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과 좋은 길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우리는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당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존중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각 개인의 가치가 인정되고, 유지되고, 강화되는 사회를 지향하며 사역한다.”⁴⁰

69.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도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활 양식을 전적으로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의 메세지는 분명하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다.

70. 우리는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도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는 이미 발생한 고통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약자를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폭력을 영속화시키고,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하는 사람들, 기업,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권력자들에게 대항한 예수님처럼 사랑의 힘을 사용하고자 한다.⁴¹ 그리고 우리는 사회원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들이 자기 양심의 명령에 따라 항거할 권리”를⁴² 따른다.

71. 순수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순수한 사랑의 힘을 잘 알고 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이 세상을 바꿀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버려진 대지를 커뮤니티 가든으로 바꾸고, 방치된 어린이를 건강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전쟁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화해의 일꾼으로 바꾸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이런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눈부시게 실천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삶으로써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참여한다.

희망과 행함으로의 부르심

72.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적이지 않은 종교를 모른다. 사회적 성결아닌 성결을 모른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하여 준다.” (Preface to *Hymns and Sacred Poems*, 1739, ¶ 5) 우리의 믿음은 결코 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웃의 필요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다. 종교에 대해 모두가 회의적인 이때에, 연합감리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교회의 표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73. 예로부터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권력에 맞서 진실을 말하고, 불의함을 지적하고, 올바른 관계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공평한 분배를 옹호해 왔다. 오늘날, 연합감리교회는 인종차별주의와 불법 이민자들에게 취해지는 학대에 항거하고, 지방 및 연방의 당국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민주주의를 유지하도록 주창하고 있다. 아리조나의 미네르바 까르카뇨(Minerva Carcaño) 감독은 수천명과 함께 항거하고 있고, 텍사스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연합감리교회 사회부는 10 여개국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종교를 초월한 철야기도회를 주관하고 있다.

74.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수천명 사역자들의 단결된 힘을 느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샌 페드로 지역에서 조직 폭력배의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가정상담, 정신진료, 아동보호, 지역사회 조직화 등의 일을 감당하는 “토블만 지역복지회(Toberman Neighborhood House)”의 열정은 우리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토블만 지역복지회는 1903년 감리교 여선교회에 의해 세워진 미국내 100여개의 국내 선교기관 중 하나이다. 복지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로 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75.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사회정의, 자연보호,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사회를 바꾸고 교회에 도전을 주는 젊은 세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예를 들면, 네브라스카 연회의 마이카 콕스(Micah Corps)의 청년 인턴들은 매년 네브라스카주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정의 교육과 훈련, 옹호활동에 열심을 다한다.

76. 목회서신과 기초문서의 작성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는 과정 동안, 참여자들은 빈곤과 질병, 환경의 악화, 그리고 무기와 폭력에 대한 그들의 염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10세에서 100세에 이르는 참여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이 무언가 하고 싶어했으며, 모두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화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했다.

1. 우리는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관찰하고, 들으면서 배워야 한다. 특별히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는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더우기,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절박한 위급함을 아는 사람은 더욱 적다. 또한 우리 개인이 어떻게 이런 문제에 결부되는지 또 이런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아는 사람 역시 매우 적다. 우리는 특별히 지식과 양심을 갖추고, 실천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젊은이들의 참여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힘을 줄 것이다.

2. 우리는 웨슬리 전통과 연합감리교회 전통, 그리고 경험에 입각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으로도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 교단은 이미 입법부나 지역의회, 국회를 포함한 수많은 사역 현장에서 변화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우리가 웨슬리를 따라 거리와 공동체에서 일할 때, 어렵고 힘든 일들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정의, 평화, 피조물의 보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희망의 말씀이 필요하다.⁴³
4.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마태복음 19:26) 우리가 공부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함께 일할 때에 우리가 가진 이 커다란 희망은 더욱 자라날 것이다.

77. 감독으로서 우리는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몇가지 실천사항과 9개의 특별한 서약을 목회서신에 담았다. 믿음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 사안을 행동에 옮기기를 바란다.

78.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정돈하자.

- 평화, 인류, 지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자;
-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신실하고 희망에 찬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개인적인 영적 변화를 시도하자;
-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공감하고, 같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소모임을 구성하자;
- 진보와 발전, 희망과 노력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함께 나누자. 공동체, 교회, 그리고 연회와 지역회에서 그 이야기들을 나누자;

- 개인적으로 또한 소규모 단위로 영성 훈련을 강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자;
- 자신의 지역이나 상황에서 긴급히 실천하거나 변화시켜야 할 사안이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알아보도록 하자. (남반구 또는 북반구, 도시 또는 시골, 힘이 있는 사람 또는 약한 사람, 거주민 또는 이주민).

79. 사회적 성결과 환경적 성결을 실천하자.

개인적인 성결과 사회적 성결을 위하여:

- 개 교회별로, 개인으로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고 기획한다. (예를 들면, 교회의 “그린 팀”이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구체적으로’와 같이 널리 알려진 구절들을 상황에 맞게 고쳐 활용한다);
- 제반 문제에 대한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을 배우고, 총회가 제시한 다양한 대응책과 행동지침을 놓고 고려해 본다.⁴⁴;
- 핵무기 확산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배우고, 새롭게 정리한다; 미결정 입법사항, 회의와 조약들, 핵 무기로부터 인류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시기별 계획안 등을 알아둔다.
- 에너지, 이민, 소비문화, 차별, 그리고 인구증가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여 평화, 건강, 정의에 대한 사역을 이미 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는지 알아보고 상호 협력한다;
- 공동체 번영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의 제거를 위해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나 의사결정권자에게 요청한다.

80. 환경적 성결을 실천하자:

-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이 가능한 자원만 사용하는 운동을 각 교회들과 교단의 모든 사역현장에서, 그리고 모든 모임에서 실천하자;
- 하나님의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앞장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로 참여하며,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자;
- 지구를 파괴하고, 고갈 또는 손상시키는 모든 구조나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정책이나,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자.

81. 서로에게서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실천하자.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의 책임을 인식한다;
- 상호연관된 세 가지 문제들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깊게하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에 우리 역시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 평가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한다.;
- 웨슬리의 “거룩한 불만족”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배운다;
- 이 상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밟는다.

82.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행동하자.

83. 피조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제자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상호관련된 여러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권고하신다.(마가복음 4:35-41)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공포와 폭력을 이용해 협박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으면서 대항하는 본보기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올 새로운 삶을 확신하게 해준다. 이 새로운 삶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피조물의 모든 부분에 새 생명을 주는 삶이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세상의 파괴된 모든 것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84.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보니, 우리는 “책임지는 희망”을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다. 이 책임지는 희망이란 약속과 동시에 위협에 모두 열려 있는 것이다. “종종 감당할 수 없는 삶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비탄과 탄식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산산히 부서진 희망을 실천에 옮겨야만 한다. 그런 일들이 쌓여... 도덕적인 행동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성향이 나타내는데, 이는 우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을 복돋워주며 정신을 더욱 강하게 해준다.”⁴⁵

85. 기초문서에 포함된 자료와 웹페이지에 제공된 자료들은 핵심 자료들, 그 밖에 귀중한 온라인 자료, 그리고 *연합감리교 총회결의문집*에서 가져온 핵심 결의문들이다. 이 자료들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교육적인 자료들이다. 또한 연구용 시간계획표, 교회와 연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천계획 자료, 이 밖에도 땀흘리고, 진전을 이루고, 희망을 품게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희망과 축원의 맺는 인사

86.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일지라도 *희망을 실천*하는 것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의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며,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행동들은 부활의 사람들로서의 특징을 구체화하는 희망적인 성향을 강화시켜 준다. 부활의 사람들이란 죽음과 파멸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 새로움과 화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가능성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빈곤과 질병을 근절하고, 우리 자연 세계의 파괴를 막으며, 무기와 폭력에 대한 의존도를 바꿔 줄 모든 행동과 함께, 우리는 희망을 실천하며, 우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87. 웨슬리의 영적 호흡을 기억하며, 축원으로 이 기초문서를 맺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호흡하라.

너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며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숨결을 느껴보라.

이제 숨을 내쉬라-말하고, 행하며, 이 세상에서 은혜와 사랑이 되라.⁴⁶

¹ 윌리엄 슬로엔 코핀 주니어 (Dr William Sloane Coffin, Jr.) 박사는 지리-정치적 용어인 “악의 축”을 언급하면서, “세상을 위협하는 더욱 위험한 삼중위협은 환경의 악화, 전세계적 가난, 그리고 무기로 뒤덮인 세상”이라고 말하였다.” *The Chautauqua Appeal to the Religious Communities of America*, 2002.

² 데일 화이트 (Dale White) 감독의 말에서 인용함, “Riding out the Perfect Storm: Communities of Faith Navigate a Scorching Earth,” 2009년 5월 Washington, D.C.에서 열린 “교회와 사회 그리고 에큐메니칼 옹호의 날을 위한 위원회.”

³ Center for Defense Information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웹페이지를 참조:

<http://www.cdi.org/program/document.cfm?DocumentID=2996>

⁴ Philippines Central Conference, Public hearing on ‘In Defense of Creation’ (February 13, 2008).

⁵ <http://www.landmine-action-week.org/statistics.htm>

⁶ “U.S. Geological Survey report on consumption of explosives” at <http://minerals.usgs.gov/minerals/pubs/commodity/explosives/600401.pdf>.

⁷ Reverend Sam Dixon, quoted by Melissa Hinnen, “Relief Office in the Philippines Offers Help, Hope” July 28, 2009.

⁸ Paul Tillich, “The Right to Hope: A Sermon,” in *Paul Tillich: Theologian on the Boundaries*, ed. Mark Kline Taylor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327.

⁹ “Works” refers to: *The Works of John Wesley*. (Nashville: Abingdon Press)(Bicentennial Edition).

¹⁰ Prayer from the Opening Worship of the 40th year Celebrations, United Theological College of West Indies.

¹¹ “The Natural World,” Social Principl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160.

¹² Walter Brueggemann, *Living Toward a Vision: Biblical Reflections on Shalom* (New York: United Church Press, 1982).

¹³ James Nash, *Loving Nature: Ecological Integrity and Christian Responsibility* (Nashville, Abingdon, 1991):131.

¹⁴ <http://www.oikoumene.org/en/resources/documents/central-committee/geneva-2008/reports-and-documents/public-issues/minute-on-global-warming-and-climate-change.html>

¹⁵ “지구 온난화와 빈곤: 복음적 환경 보호 연대” 9/19/08

¹⁶ Liberato Bautista, President of the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 in remarks to the Civil Society Development Forum, July 2, 2009, Geneva.

¹⁷ Dwight D. Eisenhower, April 16, 1953, “Chance for Peace” speech before the American Society for Newspaper Editors.

¹⁸ Testimony of John Hill, Direct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GBCS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Climate Legislation.” www.umc-gbcs.org/site/apps/nlnet/content2.aspx?c=frLJK2PKLqF&b=3631941&ct. Mr. Hill was drawing on the Communiqué of the African College of Bishops, September 2008.

¹⁹ *The Chautauqua Appeal to the Religious Communities of America*, 2002 (Endnote 1.).

²⁰ Barack Obama,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Hradcany Square,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²¹ 조지 쉬얼츠(George Shultz), 헨리 키싱거(Henry Kissinger), 샘 눈(Sam Nunn), 그리고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는 2007년 1월과 2008년, 두 번에 걸쳐 월스트리트 신문 특집면 논평을 통해 정치적 저항기구 설립을 일깨웠다. 이 네 명의 공저자가 주창한 특정 목적에 대해서는 www.nuclearsecurityproject.org 을 참조하라.

²² 2009년 2월 총감독회의, “the Chair of the Table of General Secretaries, and the Chair of the Connectional Table가 보내는 연합감리교회에 대한 메시지.”

²³ 미국 퓨젯 사운드(Puget Sound) 지역의 드와미쉬 부족(Duwamish)과 스쿼미쉬(Suquamish) 부족의 추장이었던 씨에틀 추장은 현명하고, 언변에 능하고, 용감한 지도자였다. 이는 1854년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에게 한 그의 유명한 연설에서 한 말이다.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발밑에 있는 땅은 우리 조상들의 영혼(유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땅을 존중할 수 있도록.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지구는 우리 동족의 생명들로 가득찬 곳이라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구에 어떤 재난이 닥친다 해도, 지구의 자녀들에게 어떤 재난이 닥친다 해도, 지구는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²⁴ See, for example, “Women, Gender Equality, and Climate Change” WomenWatch: Information and Resources on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United Nations.

http://www.un.org/womenwatch/feature/climate_change/. Accessed on October 30, 2009.

²⁵“FAO Strategies for Improving Food Security,” UNESCO, at

http://www.unesco.org/education/tlsf/TLSF/theme_c/mod14/uncom14t04s01.htm. Accessed October 30, 2009.

²⁶ “Rape in Times of Conflict and War” A Resolution from th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approved by the 1996 Gener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http://gbgm-umc.org/mission/resolutions/rapewar.html> Accessed October 30, 2009.

²⁷“Women Worldwide Remain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arch 5, 2008 release of the World Bank 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at

<http://youthink.worldbank.org/4teachers/pdf/gender/story-domesticviolence.pdf>. Accessed October 30, 2009.

²⁸ World Bank (for statistics from 2005) and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for list of items, from 1998); obtained from: <http://www.globalissues.org/issue/235/consumption-and-consumerism>

²⁹ Maude Barlow, “Water as Commodity - The Wrong Prescription,” *The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Background, Summer 2001, Vol. 7, No.3. Obtained from: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26/poverty-facts-and-stats#src30>.

³⁰ “Conventional Arms Transfers to Developing Nations, 2000-2007”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btained from: <http://www.globalissues.org/article/74/the-arms-trade-is-big-business>

³¹ See, for example, “Statement on Eco-Justice and Ecological Debt” World Council of Churches (February 9, 2009).

³² “In Search of Security”, published by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 Task Force on Safety and Security, 2004.

³³ Social Principles ¶165.A.

³⁴ Twenty-Fifth Annual Service of the Caribbean Conference of Churches

³⁵ Theodore Runyon, *The New Creation: John Wesley’s Theology Toda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22-23.

³⁶ Runyon, 26.

³⁷ Jurgen Moltmann, *The Spirit of Life: A Universal Affirm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2): 7-8.

³⁸ Resource: Sallie McFague. 연구지침서와 함께, 이 논의의 각 요점에 대한 추가 자료가 준비될 것이다. McFague’s books (particularly, *Super, Natural Christians*) are examples of resources for this point in particular.

³⁹ Margaret Farley, *Compassionate Respect: A Feminist Approach to Medical Ethics and Other Questions* (New York: Paulist Press, 2002).

⁴⁰ 사회원칙 중 “사회적 공동체”, ¶ 162.

⁴¹ Walter Wink, *The Powers that Be: Theology for a New Millenium* (New York: Doubleday, 1999).

⁴² 사회원칙 중 “정치적 공동체” ¶164.F.

⁴³ 이 말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선언을 준비하는 문서(Initial Statement toward an Ecumenical Declaration on Just Peace)>에서 따온 것이다. 이 문서는 세계교회협의회가 2011년 여는 에큐메니칼 평화회의의 일환으로 준비된 것이다.

⁴⁴ 이 문서의 부록인 “Sampling of Related Resolution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를 참조할 것.

⁴⁵ Ellen Ott Marshall,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lossom: Toward a Responsible Theology of Christian Hope* (Abingdon Pres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6): p. 107.

⁴⁶ Ellen Ott Marshall, "Benediction,"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hapel (April 30, 2009).